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여격이동의 담화·화용적 요인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견 정 인

견정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영어학 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영문학 박사 정 해 룡 (인)

위 원 영어학 박사 김 은 일 (인)

< 목 차 >

영문초록 ii

1. 서 론 1

2. 이론적 배경

2.1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의미와 기능 6

2.2 담화와 주제성 9

3. 연구방법론 및 언어자료

3.1 연구방법론 12

3.2 언어자료 19

4. 결과 및 토의

4.1 DAT와 PAT의 음절길이 21

4.2 DAT와 PAT의 언어형태 27

4.3 DAT와 PAT의 지시적 거리 33

4.4 DAT와 PAT의 지속성 38

5. 결 론 43

참고문헌 45

A Discourse-Pragmatic Approach to Dative Movement in English

Kyun, Jung I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English sentences with the dative and patient, which object goes first could be confusing to L2 language learners. To help learners to understand what kinds of factor make the dative move from indirect position to direct pos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rse and dative movement. This study compares the importance of both dative and patient in discourse. The more important thing could be secondary topic, so it is placed before the other one as a direct object in the sentence.

To explain how speakers choose a DAT-PAT construction over a PAT DAT construction, this study uses Chen's(1986) four variables which he refers as the "topicality of the object". They are 1) the length of the object, 2) the encoding type, 3) the distance from the antecedent in the discourse and 4) the number of times that the referents are mentioned in the following discourse. I examined 198 sentences which

have both a direct and an indirect object. They were drawn from English texts such as 'Readers Digests' and 'Guideposts'.

The dative movement could be more frequently used when the dative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tient in the sentence, such as short length of dative, pronoun, short referential distance in antecedent and high persistence in following discourse. Therefore, learners need to understand what the topic is and how to effectively convey it in the discourse.

1. 서 론

언어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화자는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의도하는 정보를 청자가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여야 하며 청자도 자신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어는 아주 작은 음절단위에서부터 단어, 구, 문장에 이르기까지 둘 이상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게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정확한 문장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문법규칙의 숙지가 요구된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단순히 문법규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나 상황에 따른 의미적인 요소의 이해도 역시 요구된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외국어 교육, 국제어로서의 영어교육은 단순한 영어발음이나 문법, 어휘를 증진시키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영어교육만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유창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그 배경은 또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영어 교수-학습 접근법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기르는 방법이다. 즉 "being able to use language appropriate to a given social context"를 포함한다(Larsen Freeman 1986:17).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합한 언어표현을 골라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자연스럽고 정확한 의사소

통을 위해 외국어 학습자가 가져야할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담화능력이라고 부르는데 담화란 둘 이상의 문장이 합쳐 이루어진 일관된 주제를 가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담화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전달이다.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누구나 잘 알고있는 보편적 정보(general information),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적 정보(situational information), 이야기하는 전·후로 전달되는 문맥적 정보(textual information)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정보는 담화 상에서 다시 신정보(New Information)와 구정보(Old Information)로 구분이 되는데, 이미 청자도 알고있는 정보를 구정보, 화자가 새롭게 제시하여 청자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신정보라고 한다. 이 두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한 현저성은 Chafe(1976)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Chafe(1976)는 문체의 지시체가 이미 선행담화에서 언급되었거나 현재 담화상황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화시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을 구정보, 화자가 말을 꺼내서야 비로서 청자의 의식 속에 처음 인지되는 것을 신정보로 보았다. 이러한 신정보와 구정보의 구별은 문장의 구성 순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발화를 할 때 어순을 따져보면 구정보를 담는 요소가 주로 먼저 제시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정보의 항이 청자에게 인지적인 또는 지각적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하여 새롭게 추가 된 것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구정보가 하기 때문이다. 신정보 와 구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의 2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이중 타동적인 동사가 쓰이는 영어문장을 실제 영어 텍스트에서 살펴보면 두 개의 목적어의 순서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중타동적인 동사에는 'give', 'tell', 'ask', 'show',

'teach', 'send', 'sell', 'promise' 그리고 'bring'등이 있는데 이들 동사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가진다. 이 두 가지 목적어 중 어느 것을 동사 바로 뒤에 두느냐에 따라 그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두 가지 목적어의 부르는 이름에 있어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라는 용어는 문장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므로[1] 연구 분석 시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록 상황에 따라 지시대상의 의미적 역할이 그 이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의 목적어를 의미적 역할(Semantic role)이름인 여격(Dative)으로, 행위를 당하는 입장의 목적어를 피동작주(Patient)로 구분지어부르도록 하겠다. 아래(1)의 두 문장은 둘 다 여격과 피동작주를 가지는 구문이며 (1a)처럼 여격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소위 3형식구문을 '기본문'(theme), (1b)처럼 여격이 동사 바로 뒤 직접목적어자리로 이동된 4형식 구문을 '여격이동구문', 그리고 이 두 구문을 통칭하여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1) a. I gave a present to you.

b. I gave you a present.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1a)는 피동작주인 'a present' 가 동사 바로 뒤 직접목적어 자리에 온 경우이고 (1b)의 경우는 여격인 'you'가 직접목적어 자리로 이동된 경우이다. 두 가지 문장 모두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민 화자들은 위 두 문장을 상황에 따라

1) 예시 (1a)의 'you'는 소위 3형식 구문에서 간접목적어 이지만 (1b)처럼 4형식 구문이 될 경우 동사 바로 뒤에 놓여 직접목적어가 된다. 이렇듯 문법적 역할(grammatical role)은 문형의 변화에 따라 바뀌므로 명칭으로 사용하기엔 혼동되기가 쉽다.

구별하여 사용한다. 그럼 언제 (1a)의 문장을 쓰며, 언제 (2a)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장의 문법구조는 문장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므로 형태가 다른 만큼 그 의미 또한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들을 살펴보자.

(2) a. John gave the book to a boy.

b. *John gave a boy the book.

위의 예문 (2)에서 보면 예시(1)과 같은 방식으로 여격인 'a boy'를 이동시킨 (2b)는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정보성의 문제에 따르면 여격인 'a boy'가 직접목적어자리에 놓이면 부자연스럽다. 피동작주인 'the book'은 한정사를 가짐으로 보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구정보이고 여격인 'a boy'는 비한정사[2] 'a'와 함께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신정보이다. 담화 상 구정보는 신정보보다 먼저 언급된다. 여러 번 언급되어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친숙하며 담화상 좀더 주제적인 구정보는 문장 속에서 신정보보다 우선하여 놓여진다.

그러면 이러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에서 여격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여격이동구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실제 원어민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여격과 피동작주를 중심으로 뒤에 제시될 4가지 방법을 통하여 담화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여격이동이 일어나는 담화·화용적 요인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영어학습자들이 담화능력의 영향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영어로 말하

2) 'a/an' 은 부정관사 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비한정 명사구'에 속하므로 '비한정사'로 부르도록 하겠다.

거나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여격구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여격구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성과 담화분석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Chen(1986)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 언어분석자료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텍스트를 분석하여 여격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목적어의 음절수,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와 지속성을 수치화 해봄으로써 결과를 토의하고 마지막장에서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어떻게 영어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가를 고려해보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의미와 기능

본 연구에서는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이라는 말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둘다 가지는 구문을 칭하도록 한다. 아래의 (3a)를 우리는 흔히 4형식 문형이라 하고 (3b)를 3형식 문형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Mary'는 여격(Dative), 'a book'은 피동작주(Patient)의 의미역할(semantic role)을 가진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목적어의 부르는 이름에 있어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라는 용어는 문장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므로 연구 분석 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상황에 따라 지시대상의 의미적 역할이 그 이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미적 역할(Semantic role)이름인 여격(Dative)과 피동작주(Patient)라는 이름으로 두 목적어를 칭하도록 하겠다.

(3) a. I gave Mary a book.

b. I gave a book to Mary.

우선 여격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면 여격(Dative)은 인도-유럽어족에서 인정되는 격 중 하나로서 수여, 이해, 영향 등 작용을 받는, 즉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 일 등을 받아들이는 쪽, 또는 그 경험자를 뜻하는 간접목적어 격을 말한다. 현대 영어에서는 동사의 직접목적어 격인 대격(accusative case)과 형태상 구별 없이 쓰이므로, 그 대격과 아울러 목적격(objective

cas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가 많으며 두 격의 의미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남완 2000:71).

Givón(1983a)에 따르면 영어에서 절은 그것의 의미적(그리고 통사적)핵심을 차지하는 동사유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동사는 절에 의해 부호화 된 상태나 사건 안에서 참여자들의 관련 종류에 따라서 여러 의미유형으로 나뉜다. 즉, 동사의 의미유형은 상태나 사건내의 참여자들의 의미역할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각 동사와 전형적으로 연관된 의미역할의 배열이 동사의 명제틀(propositional frame)을 정의하고, 따라서 나아가 동사 절의 의미 유형을 정의한다(Givón 2001:141).

Givón(2001)에 따르면 영어 여격이동이 가능한 구문은 크게 세 가지 이형을 가지는데 두 개 목적어를 함께 취해야하는 구문, 여격이 전치사를 취한 간접목적어로만 쓰여야 하는 구문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구문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격을 갖는 구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사들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성질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담화 속에서 화자의 이야기하려는 의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경우인, 위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영어단문에서 직접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고, 형태적으로도 전치사 없이 단독으로 쓰인다. 직접목적어는 담화 상에서 주어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일 경우 간접목적어보다는 훨씬 중요한 경향이 있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에서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로 상승하는 것은 주로 여격과 수혜자격 목적어에 한정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격-수혜자격 간접 목적어를 가진 가장 흔한 이중 타동적인 동사는 'give', 'tell', 'ask', 'show', 'teach', 'send', 'sell', 'promise', 'bring'등이 있다. 여격이동이 이루어진 예를 살펴보자.

(6) a. She gave the book to **him** → She gave **him** the book.

b. He told the story to **his son.** → He told **his son** a story.

c. She showed the house to **him** → She showed **him** the house.

(6a)에서 'the book', (6b)에서 'the story', (6c)에서 'the house'는 피동작주(Patient)이며 (6a)에서 'him', (6b)에서 'his son' (6c)에서 'him'을 여격(Dative)가 되며 각각의 여격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동사바로 뒤인 직접 목적어자리로 이동된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피동작주를 영어 'Patient'의 약어로 'PAT'로 여격을 'Dative'의 약어로 'DAT'라고 부르겠다. 예시(6)에서 각 항의 첫 번째 문장은 동사 바로 뒤에 PAT가 놓여지고 DAT는 전치사를 취하는 소위 3형식문형이라 부르는 형태인 기본문이며, 각 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전치사 뒤에 있던 여격이 동사 바로 뒤로 이동한 4형식 문형의 여격이동 구문이다. 이처럼 전치사 뒤에 있던 여격이 화자의 의도에 의해 동사 뒤의 직접 목적어 자리로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격이동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DAT와 PAT의 문맥상 의미를 비교해보고 실제 담화에서는 어떤 차이를 가지며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영어교육에 적용시켜 학습자들에게 확실히 구별지어준다면 좀더 자연스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2 담화와 주제성

Van Dijk(1977)은 텍스트 문법의 기술에서 텍스트를 담화가 표면에 명시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본다. 즉 텍스트는 문의 연쇄로서의 표층을 지닌 지속적인 담화이며, 담화와 텍스트의 관계는 발화와 문과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담화와 텍스트가 공히 문맥(context)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둘을 다 같이 '담화'라 부르고자 한다.

담화 분석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구사되는 말과 관계되며, 특히 화자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해 주로 연구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인 이상, 의사소통의 상황과 의사소통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언어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언어능력이란 올바른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문법 규칙을 아는 것 뿐 아니라 그 언어 사회에서 용인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상황에서 그에 알맞고 적합한 언어 표현을 골라 쓸 수 있는 담화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것이다

프라그 학파의 창시자중 한사람인 Mathesius(1939)는 담화 정보구조상 주어진 정보를 주제(Topic)라고 부르고 새로운 정보를 논술(Comment) 또는 논평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주제는 문장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여지는 대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어순으로 말하여지는 경우 문장은 주제가 먼저 나오고 논술이 뒤에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Mathesius(1939)는 이러한 주제-논술이라는 정보구조상 어순과 문법적 어순간 차이로부터 언어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담화 상에서 정보구조에 관한 화제-논평 개념으로 문법적 어순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형태를 담화·화용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최초 시도인 것이다.

담화 상황에서 화자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구성성

분들을 제대로 배치해주어야 할 것이다. 화자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적절히 배열하여 중요한 정보에 청자가 주위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하며 전달하여야 한다.

전달되는 정보가 신정보 혹은 구정보인지는 화자에 의해 구별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청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가진 선행지식을 전제로 하여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가진 어느 정도의 선행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장이나 담화를 엮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청자는 그 정보를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은 수정하면서 담화를 진행한다. 여기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예상 가능한 내용을 구정보라 하고, 화자가 새롭게 전달하려고 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을 신정보이라고 한다.

(7) a. I'd like to show you a picture.

b. I bought it last week.

(7)문장들이 담화 속에서 연속되어 나타났다고 가정할 때, (7a)에서 'a picture'은 처음 언급되는 정보이다. 형태상 비한정관사 'a'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앞에 문맥 없이도 그 지시대상은 청자의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은 신정보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에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정보이다. (7b)의 'it'은 앞 문장에서 'a picture'을 대명사로 대치한 것이므로 이미 언급된 정보인 구정보이다.

우리는 이렇듯 어순을 바꾸거나 언어형태를 바꾸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청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문장을 구성한다. 만약 담화 속에서 구정보만으로 된 문장들이 계속 된다면

새로운 내용이 없어 잉여적인 문장들로 가득 찰 것이고, 반대로 만약 신정보만으로 된 문장들만 계속된다면 담화 속에서 응집력이 없어 화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Mathesius(1939)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정보는 신정보보다 여러 번 언급되어 이미 청자에게도 익숙한 내용이므로 담화 속에서 보다 주제적이다. 따라서 올바른 의사 소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문장 속에 구정보와 신정보가 적절히 있으며 친숙한 구정보가 비교적 친숙하지 못한 신정보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론 및 언어자료

3.1 연구방법론

담화·화용론적 연구는 언어의 기능에 관심을 두고 주로 응집성, 지시대상의 도입과 전개, 또는 지시적 표현의 선택 등과 같은 담화 의존적인 언어학적 현상들이 연구되어 왔다. 담화 층위에 관한 연구도 연구방법에 따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Bolkestein(1985)은 언어학자의 직관에 의한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텍스트상의 토큰을 계량화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연구로는 Gundel et al.(1993)등이 있고 두 번째 연구방법에 속하는 연구로는 Givón(1983b), Brown(1983), Ariel(1988)등이 있다. 두 번째 연구방법과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나타난 토큰의 수를 계량화하여 언어형태의 선택 및 문장 속에서의 어순 등을 결정짓는 담화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의 연구방법 중에서 두 번째, 토큰의 수를 계량화하는 방법을 취한다. 실질적인 담화 속에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추출하여 Chen(1986)의 이전연구 방식을 빌어서 DAT와 PAT의 담화와의 관련성을 찾아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여격이동구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Chen(1986)은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은 직접목적어의 선행 담화의 관련성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 연구에서 담화와의 관련성의 수치를 4가지방법으로 측정하였는데, 음절의 길이,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 지속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두 가지 목적어인 여격과 피동작주의 담화와의 관련성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그 4가

지 방법을 따랐다. Chen(1986)에 따르면 구동사의 불변화사의 이동의 경우 직접목적어가 선행담화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관련성이 높고 후행담화에서 관련성이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직접목적어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목적어 음절길이가 비교적 짧고, 목적어의 형태가 소유격이나 한정사와 결합한 한정 명사구일 때, 그리고 해당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짧은 경우이다. 음절이 비교적 짧고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한정명사구일수록 담화 속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예상하는 주제성이 높은 구정보이므로 여러 번 언급되어 지시적 거리가 짧으며, 수식하는 관용구가 많아 음절이 길고 비한정 관사와 결합하는 비한정 명사구일수록 화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신정보이므로 주제성이 떨어져 지시적 거리 또한 길다는 것이다.

Chen(1986)은 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지만, 담화 속에서의 목적어의 "주제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Chen(1986)의 연구방법을 따라 텍스트에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추출하여 DAT와 PAT의 각각의 음절수,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 지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4가지 분석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목적어 길이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목적어의 음절 길이를 분석한다.

(8) a. He gave **her** infinite patience and love.
[1음절] [7음절] (*Readers Digest 63집:p10*)

b. She wrote **a letter** to her roommate.
[3음절] [3음절] (*Readers Digest 63집: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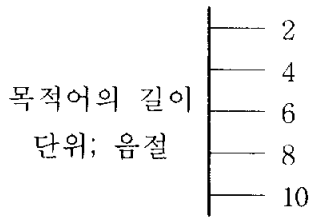
여격이동이 일어난 (8a)의 경우 DAT는 1음절, PAT는 7음절이고 (8b)의

경우에서는 PAT는 3음절, DAT도 3음절이다.

Givón(1983b)에 의하면, 직접목적어의 음절 길이가 짧을수록 담화속에서 연속성을 보이며 직접목적어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길어질수록 신정보로 보아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청자에게 새로운 신정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길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목적어의 길이와 담화 속에서의 주제성의 정도를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자.

<표1> 음절수에 따른 참여자 연속성(Chen 1986:83)

높은 참여자연속성(High Participant Continuity)



낮은 참여자연속성(Low Participant Continuity)

<표1>에서의 Chen(1986)의 가설에 따라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DAT와 PAT의 음절수를 분석해 보았다. 두 목적어 중에서 음절수가 짧을수록 참여자연속성이 높으며 주제적이다.

두 번째, DAT와 PAT의 언어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목적어의 형태가 신정보일 때 비한정 관사를 가지는 비한정 명사구 표현이 빈번히 나타나고, 이전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한정사를 사용하거나 대명사로 대치하는 한정 명사구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9) a. He gave **her** infinite patience and love.

DAT PAT (*Readers Digest 63집:p10*)

b. She wrote **a letter** to her roommate.

PAT DAT (*Readers Digest 63집:p72*)

여격이동이 일어난 (9a)의 경우 DAT 'her'은 대명사, PAT 'infinite patience and love'는 비한정 명사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9b)의 경우는 PAT 'a letter'은 비한정 명사, DAT 'her roommate'는 한정 명사이다.

<표2> 언어형태에 따른 참여자 연속성(Chen 1986:84)

높은 참여자연속성(High Participant Continuity)

언어형태
- 강세없는 대명사
- 한정 명사구(예 the/his +NP)
- 비한정 명사구(예 a/one +NP)
- 강세받는 항(contrastively stressed items)

낮은 참여자연속성(Low Participant Continuity)

<표2>에서 보듯이 언어형태에 따른 Chen(1986)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정사구, 대명사로 갈수록 비한정 명사구에 비해 참여자 연속성이 높아 더 주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T와 PAT의 언어형태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놓인 가장 낮은 참여자 연속성의 '강세받는 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문어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강세에 관한 관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는 어떤 등장 인물을 가리키

는 지시대상이 이전의 담화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된 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의 거리란 절의 수를 뜻하며, 여기서 절은 동사를 기준으로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포함한다.

(10) ...Doctors said / it was a miracle:/ I think / it was her love for her grandchildren / that kept her fighting right up to the last./ Mom died five days after her 53rd birthday./ Even now, it hurts **me**$_i$ / to think / that someone who had so much hardship in life / should have suffered so at the end./ ***But she taught*** **me**$_i$ ***the answer***$_j$ ***to that too.***

D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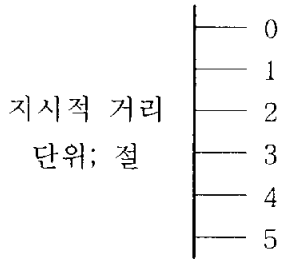
PAT

(Readers Digest 63집:p10)

(10)의 마지막 문장 'But she taught me the answer to that too.'의 여격 이동 가능한 구문에서 DAT 'me'와 PAT 'the answer'의 지시적 거리를 측정해보면 'me'의 경우 앞으로 4번째 절에서 같은 지시대상 'me'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the answer'의 경우는 20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같은 지시대상의 언급이 없었다. 그러므로 DAT의 지시적 거리는 "4"이고 PAT의 지시적 거리는 "20"이다. 이는 지시적 거리가 짧아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DAT는 주제성이 높고 좀더 주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3> 지시적 거리에 따른 참여자 연속성(Chen 1986:85)

높은 참여자연속성(High Participant Continuity)



낮은 참여자연속성(Low Participant Continuity)

Chen(1986)의 가설에 따라 지시적 거리를 조사해본다. 지시적 거리가 낮을수록 참여자 연속성이 높다. 어떤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다는 것은 담화 속에서 그 목적어를 언급한 지시대상이 현재 그 목적어가 속한 절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곧 자주 언급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선행담화와의 연관성이 크며 주제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지시적 거리가 높다는 것은 선행담화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므로 주제성이 낮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Givón(1983a)을 따라서 지시적 거리를 "1"부터 최대 "20"으로 잡았고 처음 언급되었거나 20절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지시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항상 "20"으로 수치화 하였다. "20"이란 수치의 지시적 거리는 이전담화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 지시대상과 20절 이상 떨어져 있어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로 보아도 좋을 만큼 이미 청자의 기억 속에 자리잡지 못한다고 고려한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Persistence)은 하나의 지시대상이 후행담화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수치화 한 것이다. 앞에서의 지시적 거리와 같

이 단위는 동사 절을 기준으로 하고 후행담화 10절 내에서 같은 지시대상이 몇 번 언급되었는지의 횟수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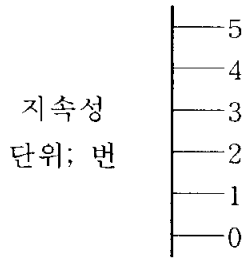
(11) ....***which gave*** **Vince$_i$** ***a ravenous appetite$_j$.***/ **He$_i$** walked the
DAT PAT
halls incessantly / to build **his$_i$** strength, / dragging **his$_i$** I.V. rack along. / "If cancer gets **me$_i$**, / it's going to have to chase **me$_i$** down."/ Teammates paraded in at all hours / to give **him$_i$** support.

(Readers Digest 65집:p16)

첫 문장 'which gave Vince a ravenous appetite.'은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으로서 DAT 'Vince'는 후 담화(10절 내)에서 6번 언급되었다. 이 때에 'Vince'라고 똑같이 언급하지 않고 대명사 'he', 'his', 'him' 때로는 직접화법으로 표현될 경우 'I'나 'me'등으로 대치되어 사용된 경우도 결국 'Vince'를 의미하므로 지속성을 조사할 때 포함시켰다. PAT 'a ravenous appetite'의 경우는 뒤에 10절 내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DAT는 "6", PAT는 "0"의 지속성을 가진다.

<표4> 지속성에 따른 참여자 연속성

높은 참여자연속성(High Participant Continuity)



낮은 참여자연속성(Low Participant Continuity)

Chen(1986)은 지속성이 낮을수록 참여자 연속성이 높아 불변화사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hen(1986)에서 밝혀졌듯이 이와 같은 주제성이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속성이란 하나의 지시대상이 제시되고 그 후의 담화 속에서 얼마나 여러 번 언급되는 지의 지속 여부를 수치화 한 값이다. 그러므로 한 지시대상이 후 담화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는 것도 그 대상이 주제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지속성의 값이 클수록 주제성이 짙다고 가정한다.

3.2 언어자료

분석자료는 Readers Digest 영한대역 2003년 63집, 64집, 65집 3권과 Guideposts 영한대역 2002년 7월호, 2003년 2월호, 2003년 3월호, 2003년 4월호, 2003년 5월호 5권에서 발견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 198개이다. 특정

한 인물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소설이나 문어체 중심의 형식적인 텍스트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월간 잡지들이었기에 훨씬 더 다양한 내용과 적절한 길이의 에세이 형식의 글이 많아 실제 담화에 가까운 표현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8개의 구문들은 여격이동이 되거나 전치사 뒤로 여격이 배치되어 여격이동이 되지 않는 구문으로 둘 다 표현 가능한 동사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PAT의 경우, 직접 인용하여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구문과 같은 경우는 제외시켰다. 예(12)를 보자.

(12) He **told** Josh, "it's time to put ego aside."

위의 (12)의 경우도 DAT와 PAT를 가지는 여격이동구문이긴 하지만 PAT인 목적절 'it's time to put ego aside.'가 직접목적어자리로 옮겨져 3형식 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tell'이라는 동사가 기본문(3형식구문)과 여격이동구문(4형식구문)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동사이지만 (12)와 같이 기본문(3형식구문)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문은 제외시키고 여격이동이 가능한 구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취한 198개의 문장을 실제 원어민 텍스트에서 발견하여 문장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여격이 동사의 바로 뒤 직접 목적어자리로 이동된 여격이동구문 174개와 여격이 전치사를 취하는 간접목적어자리에 그대로 있는 기본문 24개[3]로 분류하였다. 이 문장들의 DAT와 PAT를 각각 4가지 측정방법 즉, 음절길이, 언어형태의 종류, 지시적 거리와 지속성의 값을 측정, 계량화하여 어떤 담화 문맥에서 여격이동구문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DAT와 PAT의 음절길이

아래 <표5>는 여격이동구문 174개와 기본문 24개의 DAT와 PAT의 음절길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제시한 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격이동이 된 구문에서는 DAT(여격)가 PAT(피동작주)보다 먼저 놓이게 되므로

3) 본 연구를 위해 실제 원어민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웠던 현상은 전체 198개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 중에 174개(88%)가 여격이동이 일어난 구문이었고 나머지 24개(12%)만이 여격이 전치사 뒤로 배치되어 있는 기본문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말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영어로 영작할 때 많은 학습자들이 우리말 여격조사 "에게"의 영향으로 전치사 "to"의 사용을 선호하여 소위 3형식 구문인 기본문의 형식으로 주로 표현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꽤 흥미로운 결과였다. 실제 원어민 텍스트를 분석하여 연구하면서 이러한 원어민들의 말하기 방식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은 되었으나 여격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문을 24개밖에 발견하지 못하여, 더 많은 분석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에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DAT PAT"으로 표시하고 여격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문은 피동작주(PAT)가 여격(DAT)보다 먼저 놓이게 되므로 보기 쉽도록 "PAT-DAT"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표5> 음절수의 평균 수치 비교

음절수 평균수치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DAT	1.3	4.0
PAT	5.5	3.7

위의 <표5>와 같이 여격이 이동된 구문의 경우 DAT의 음절수 평균수치는 1.3개로 PAT의 음절수 5.5개보다 훨씬 짧았다. 그리고 기본문의 경우를 보면 DAT의 평균 음절수가 4.0개이고 PAT의 평균 음절수는 3.7개로 여격이동구문과는 반대로 DAT 음절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절수가 짧을수록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 즉 동사 뒤의 직접 목적어 자리[4]에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격이동구문의 경우는 DAT-PAT의 어순이며 이때 DAT가 PAT보다 훨씬 짧은 음절수를 가진다. 기본문의 경우는 DAT가 계속 전치사 뒤에 자리하므로 어순이 PAT-DAT 순으로 오고 이 때는 앞에 오는 PAT의 음절수가 DAT보다 더 짧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5>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여격

4) 영어 단문에서 직접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고, 형태적으로 무표지-전치사 없이 나타남-이고, 동사와의 문법적 일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담화·화용론적 용어로는 직접목적어가 절의 이차적 주제(secondary topic)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직접목적어가 담화상에서 주어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간접목적어(존재한다면)보다는 더 중요한 경향이 있다(Givón 2001:147).

이동구문과 기본문의 DAT와 PAT끼리를 비교해 보면, DAT의 경우 여격이동 된 경우 1.3개, 여격이동 되지 않은 기본문의 경우 4.0개의 음절수를 가지므로 같은 DAT라고 하더라도 음절수가 짧을수록 여격이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P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격이동 되어 PAT가 DAT보다 뒤에 위치하는 경우 5.5의 음절수를 가지며 기본문의 경우 3.7개의 음절수를 보임으로서 DAT보다 음절수가 짧은 PAT의 경우는 DAT보다 앞서 직접 목적어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DAT-PAT구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13) a. Show **them** *your smile*.

[1음절] [2음절] *(Readers Digest 65집:p62)*

b. He helped show **me** *that friendship can grow between any two people*. [1음절] [11음절]

(Guideposts 2003 4월호:p29)

위의 (13)예문은 여격이동이 일어난 DAT-PAT구문이다. (13a)의 경우 두 목적어 중에 DAT인 'them'은 "1"음절, PAT인 'your smile'이 "2"음절로 DAT가 PAT보다 음절길이가 짧음을 알 수 있다. (13b)예문에도 DAT는 "1"음절이고 PAT는 "11"음절로서 DAT가 PAT에 비해 짧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PAT보다 짧은 DAT가 동사 뒤 목적어 자리로의 이동하는 여격이동이 선호되었다.

(14) a. He gave *credit* to **his parents**.

[1음절] [3음절] *(Guideposts 2003 3월호:p66)*

b. They set up their own Web sites to tell *their story both* to **fellow**

[4음절]

Serbs and the outside the world.

[8음절] *(Readers Digest 63집:p40)*

(14)의 두 예문은 모두 여격이동이 되지 않은 PAT-DAT순서로 놓여진 기본문이다. (14a)를 보면 먼저 놓인 PAT 'credit'의 음절수가 "1"이고 전치사 뒤에 위치한 DAT 'his parents'의 음절수는 "3"이다. (14b)의 예문에서는 PAT는 "4"음절, DAT는 "8"음절이었다. 이 경우에서는 오히려 DAT보다 PAT의 음절길이가 더 짧아 여격이 앞으로 이동되지 않고 PAT가 직접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여격이동구문과 기본문 에서의 DAT와 PAT의 음절수를 좀더 자세히 분류하여 그 분포를 분석한 표이다.

<표6>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DAT 음절수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1-2	172	161	93.6%	11	6.4%
3-5	18	13	72.2%	5	27.8%
6-10	6	0	0%	6	100%
11-15	1	0	0%	1	100%
16--	1	0	0%	1	100%

<표6>은 두 가지 구문에서의 DAT만을 추출하여 음절수를 비교한 표이다. 이 표는 Chen(1986)이 분석한 방법을 참고하여 음절수를 "1-2", "3-5", "6-10"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이다. DAT의 음절이 "1-2"인 경우 총 172개의 예문 중에서 93.6%는 여격이동이 되었고, 6.4%만이 이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DAT의 음절수가 "3-5"음절인 경우 72.2%가 여격이동이 일어나고 6음절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는 여격이동이 0%로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기본문에서는 DAT의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기본문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똑같은 문장 속에서의 PAT의 음절수의 분포도를 살펴보자.

<표7>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PAT 음절수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1-2	52	41	78.8%	11	21.2%
3-5	78	70	89.7%	8	10.3%
6-10	48	44	91.7%	4	8.3%
11-15	13	12	92.3%	1	7.7%
16--	7	7	100%	0	0%

<표7>에서 보면 PAT의 경우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여격이동이 78.8%, 89.7%로 점점 더 빈번해져 "16"음절이상일 때는 100% 여격이동이 일어나 PAT는 DAT보다 뒤에 놓이는 경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PAT의 음절수가 짧을수록 여격이동 안 되는 정도가 높아져 PAT가 직접목적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기본문의 형태가 선호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15) a. I gave **her** *a lot of pointers on color and composition.*

[1음절] [13음절] *(Guideposts 2002 7월호:p90)*

b.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1음절] [5음절] *(Guideposts 2003 3월호:p94)*

(16) a. ...giving *lectures* to **any group that would listen**.

[2음절] [6음절] *(Readers digest 64집:p28)*

b. Now I plan to give *it* to **somebody else who needs it.**

[1음절] [6음절]

(Guideposts 2003 2월호:p90)

여격이동이 일어난 (15)에서도 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16)에서도 동사 바로 뒤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문장 내 두 목적어 중에서 음절길이가 짧은 것이 놓임을 알 수 있다. 목적어의 음절길이의 차이는 그 목적어의 정보성과의 연관성을 가진다. 청자와 화자가 모두 다 알고있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어 (15)의 'her', 'us', (16)의 'lecture','it'과 같은 경우는 담화 상 이미 익숙한 구정보이므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두 음절이나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15)의 PAT, (16)의 DAT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어가 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구별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라면 그 정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수식어구를 길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음절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절길이가 짧을수록 화자 청

자모두에게 익숙한 구정보이고 음절이 길수록 청자에게 낯설은 신정보이므로 담화 상 좀 더 주제적인 구정보가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앞서 놓여져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2 DAT와 PAT의 언어형태

두 목적어 DAT와 PAT의 언어형태는 각각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아래의 <표8>을 살펴보자. DAT가 대명사인 예문 149개 중에 95.3%, DAT가 한정명사구인 24개의 예문 중에 75%가 여격이동되었다. 비한정명사의 형태를 가진 DAT의 경우는 여격이동이 33% 일어나고 DAT가 절의 형태인 경우는 여격이동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비한정 명사구를 기준으로 대명사 쪽으로, 즉 위로 올라갈수록 여격이동이 많이 일어남을 보인다. 기본문의 경우는 DAT가 비한정 명사구쪽으로 갈수록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표8> DAT의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 비교

DAT 형태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대명사	149	142	95.3%	7	4.7%
한정명사구	24	18	75%	6	25%
고유명사	10	9	90%	1	10%
비한정명사구	15	5	33.3%	10	66.7%
절	-	-	-	-	-

위의 <표8>에서는 목적어의 형태를 대명사, 한정명사구, 고유명사, 비한정명사구와 절의 형태로 5가지로 분류한다. 대명사라는 것은 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등 앞에 언급한 지시대상을 다시 언급할 때 대치하여 사용되는 명사이며 한정 명사구에는 정관사 명사구, 소유격 명사구, 지시사 명사구등이 포함되며 특정한 지시대상을 나타내므로 화자와 청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익숙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유명사는 사람이름이나 지명이름 등 유일한 어떤 지시대상을 칭한다. 비한정명사구라는 것은 부정관사 명사구, 부정지시사 명사구들을 말하며 주어와 동사를 가지는 목적절의 형태는 절의 형태로 분류한다. DAT가 대명사인 경우는 95.3%가 여격이동이 일어났고, 한정명사구일경우 75%, 고유명사일 경우 90%, 비한정 명사구일 경우 33.3%가 여격이동이 일어났다. 즉 여격이 한정명사구나 대명사일수록 좀더 주제적인 경향이 짙어 직접목적어자리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7) a. Then he gave **her** *some advice*. *(Readers Digest 63집:p6)*

b. Show **them** *your smile*. *(Readers Digest 65집:p62)*

c. She just gave **the children** *infinite patience and love*.

(Readers Digest 63집:p10)

(17a)는 DAT가 'her'로 대명사이고 PAT 'some advice'는 비한정 명사구라 구정보이며 친숙한 'her'이 동사의 직접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여격이동이 일어났다. (17b)의 DAT 'them' 이 대명사, PAT 'your smile' 은 한정명사구의 형태이므로 좀더 주제적인 대명사가 먼저 놓이게 된다. (17c)의 경우 DAT인 'the children'은 한정 명사구이고 PAT 'infinite patience and love' 는 비 한정명사구이므로 이때는 좀더 주제성이 높은 한정명사구(DAT)가 직접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여격이동이 일어난다.

이 같은 해석은 Chen(1986)의 '영어 담화와 불변화사 이동'에 대한 연구의 분석 방법을 참고한 것으로 Chen(1986)의 선행연구 결과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9> '영어 담화와 불변화사 이동' (Chen 1986:87)

목적어의 언어형태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한정명사구	157	67	42%	90	58%
고유명사	9	3	33%	6	67%
비한정명사구	67	9	15.5%	58	84.5%

한정 명사구 > 고유명사 > 비한정 명사구 (불변화사의 선호도)

위의 <표9>에 따르면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 42%, 고유명사 33%와 비한정 명사구 15.5%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이는 아래로 갈수록 해당 목적어의 주제성이 낮고 청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신정보임을 보여주며 이들은 문장속에서 먼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Chen(1986)은 이 연구에서 불변화사의 선호도가 아래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제성의 위계도 이와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명사가 담화속에서 주제성이 가장 높은 구정보인 경향이 크고 그 다음이 한정 명사구, 고유명사, 비한정 명사구 그리고 절 순으로 나타나게된다. 이러한 방법과 원리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위의 <표8>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DAT가 대명사 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격이동이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hen(1986)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에서 90%를 나타내 오히려 한정명사 75%보다 더 큰 수치를 보이는 예외가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예문들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18) During March, Vince lost an alarming amount of weight. Finally he told Josh, "It's time to put my ego aside." He was going ***to tell*** **Smith** ***how serious his condition was.***

(Readers Digest 65집:p14)

(18)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격 'Smith'가 직접목적어 자리에 놓인 여격이동구문이다. 이렇게 고유명사가 언급되는 이유로 '애매성'(ambiguity)의 문제를 적용시켜볼 수 있다. 여기서 'Smith'라고 고유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전 담화에서 'Vince',

'Josh', 'he', 'my'..등의 여러 다른 인물들의 언급에 따라 청자의 애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청자가 이미 알고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him'이라는 대명사 대신에 'Smith'라는 고유명사를 다시 언급하여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이다. 문맥 속의 주제성의 위계에 따라 대명사나 한정 명사구가 여격으로서 고유명사보다 선호된다하더라도 문맥의 상황에 따라 좀더 청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고유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19) a. The girl who walked toward Lori looked very much like Chelsey. Then she titled her head back and offered a radiant, natural smile of greeting. That's it! Lori told herself. In that instant she knew she would stop at nothing to give **Chelsey** *a chance to do the same*. *(Readers Digest 65집:p58)*

(19a)에서 'Chelsey'는 'Lori'의 딸로 담화상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전문맥에서 'the girl', 'Lori', 'she'..등으로 언급된 다른 인물들과 혼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명사로 표현하는 대신 고유명사를 사용하였다.

b. "I don't want you boys getting hurt." he'd say. "We're a family, and we're going to stay that way." As his big brother, I taught **Brett** *everything I knew about driving the micro*.

(Guideposts 2003년 5월호:p14)

(19b)에서 'Brett'의 경우도 사람의 이름으로 전후문맥상 청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대명사 대신 고유명사를 사용하였다. 담화 속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제성이 높은 대명사로 표현하는 대신 주제성이 떨어지는 고유명사를 직접목적어자리에 놓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PAT의 언어형태를 분석하여 비교한 표이다.

<표10> PAT의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 비교

PAT 형태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대명사	8	3	37.5%	5	62.5%
한정명사구	35	30	85.7%	5	14.3%
고유명사	1	1	100%	0	0%
비한정명사구	96	82	85.4%	14	14.6%
절	58	58	100%	0	0%

<표10>에서는 PAT가 대명사 쪽으로 갈수록 여격이동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PAT가 대명사인 경우는 DAT보다 뒤에 놓이는 여격이동구문이 되기보다 PAT의 원래자리 직접목적어자리에 그대로 놓인 기본문의 형태가 선호되다. PAT가 절인 경우는 100% 여격이동구문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절이 직접 목적어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격이동이 되지 않은 PAT-DAT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20) a. Now I plan to give *it* to **somebody else who needs it.**

(Guideposts 2003 2월호:p90)

b. But we've decided to give *the job* to **another candidate.**

(Guideposts 2003 5월호:p62)

c. I built *a hot-air ballon* for **disabled people.**

(Guideposts 2002 7월호:p78)

(20)의 경우는 반대로 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는데 PAT가 DAT보다 주제성이 더 높은 형태인 경우는 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구정보인 PAT가 직접목적어자리에 그대로 놓이게 된다.

4.3 DAT와 PAT의 지시적 거리

아래 <표11>에서는 여격이동구문과 기본문에서 DAT와 PAT의 지시적 거리의 평균 수치를 보여준다. 지시적 거리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자가 이야기한 지시대상을 그 전 문맥에서 마지막으로 언제 언급하였는지를 절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사이의 거리를 절수를 나타낸 값이다. 그러므로 지시적 거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행 담화 속에서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으로 연속성을 보이며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연속성이 낮아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DAT와 PAT의 지시적 거리의 평균수치를 나타낸 표이다.

<표11> 지시적 거리의 평균 수치 비교

지시적 거리 평균수치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DAT	4.0	11.5
PAT	18.2	12.3

<표11>을 보면 여격이동 된 경우의 DAT는 지시적 거리가 "4.0"이며 이동되지 않은 기본문의 경우는 "11.5"를 보여준다. PAT는 여격이동이 된 구문에서 "18.2", 여격이동 되지 않은 구문에서 "12.3"의 지시적 거리를 가진다. 즉 지시적 거리가 낮은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 직접목적어자리에 놓이는 경향을 보인다. 여격이동이 된 구문의 DAT와 PAT의 지시적 거리를 비교해볼 때 DAT가 "4.0" PAT가 "18.2"로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DAT의 지시적 거리가 낮을수록 여격이동이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21) a. He took Zoie, / a flying fox, to the town's two elementary schools / and talked with students about ***bat***$_j$./ "Tomorrow night I'll be at the library,"/ Tuttle told the children. / "If you can get your parents / to bring **you**$_i$ there, / *I'll show* **you**$_i$ ***bats from all over the world***$_j$.

(Readers Digest 64집:p30)

b. ...[17절]... In 1950, when I was just a year old, / some local stock car racers were looking for a track. / **My**$_i$ grandfather and

dad carved out a dirt track on about 20 acres of cornfield on ourland. / *He built* **me**$_i$ ***a micro midget***t_j.

(Guideposts 2003 5월호:p13)

(21)은 여격이동구문의 예로써 (21a)의 마지막 문장 의 DAT 'you'의 지시적 거리는 "1", PAT 'bats from all over the world'의 지시적 거리는 "5"가 된다. 이 경우에서는 'you'가 'bat'보다 먼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이전담화와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21b)의 경우도 마지막 문장의 DAT 'me'는 다른 형태이지만 같은 의미의 지시대상을 가지는 'my'를 바로 앞 절에서 만나므로 지시적 거리가 "1"이고 PAT인 'a micro midget'의 경우는 위로 20절 이상 올라가 보아도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최대치 "20"을 부여했다. 이는 텍스트 상에서 20절 이전에 언급한 것은 화자가 처음 제시하는 정보와 거의 같을 정도로 청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Givón(1983a)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시적 거리가 "20"인 PAT는 청자가 처음 제시한 신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전담화와의 관련성은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지시적 거리에 따른 여격이동구문과 기본문에서의 DAT의 지시적 거리를 수치별로 각각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12> DAT의 지시적 거리 수치에 따른 분포비교

DAT 지시적거리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1-2	119	114	95.8%	5	4.2%
3-5	37	33	89.2%	4	10.8%
6-10	8	6	75%	2	25%
11-20	34	21	61.8%	13	38.2%

<표12>은 DAT의 지시적 거리가 "1-2"로 낮은 경우 전체 119개의 예문 중에 95.8%가 여격이동이 일어났고 지시적 거리가 낮아질수록 그 비율은 89.2%, 75%, 61.8%로 점점 감소하였다. DAT의 지시적 거리가 높을 수록 여격이동이 되지 않고 전치사 뒤의 간접 목적어자리에 그대로 놓여진다. 다음은 PAT의 지시적 거리를 비교한 표이다.

<표13> PAT의 지시적 거리 수치에 따른 분포비교

PAT 지시적거리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1-2	15	8	53.3%	7	46.7%
3-5	8	5	62.5%	3	37.5%
6-10	8	6	75%	2	25%
11-20	167	155	92.8%	12	7.2%

<표13>에서 알 수 있듯이 PAT의 경우도 지시적 거리가 "11"이상일 때 7.2%, "6-10"일 때 25%, "3-5"일 때 37.5%, 가장 낮은 "1-2"일 때 46.7%로 지시적 거리가 낮아질수록 여격이동이 되지 않고 DAT가 그대로 놓이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PAT가 DAT보다 앞서는 즉, PAT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경향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PAT의 지시적 거리가 DAT보다 낮은 경우는 PAT가 이전담화와의 관련성을 더 가지며 주제적이어서 여격이동이 되지 않고 PAT가 DAT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a. ...[15절].../you gave me a coat / and ended up warming my heart. / You have no idea / how much ***your gift***$_i$ meant to me./ Now I plan / *to give* ***it***$_i$ *to* ***somebody else who needs it***$_j$."

(Guideposts 2003 2월호:p90)

b. I have to get ***this job***$_i$ / ...[9절]... / "I'm sorry."/ he said,/ "but we've decided / *to give* ***the job***$_i$ *to* ***another candidate***$_j$."

(Guideposts 2003 5월호:p62)

(22a)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여격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문 PAT DAT 구문이다. PAT 'it'은 앞으로 2번째 절 'your gift'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으므로 그사이의 절수로 보아 지시적 거리가 "2"이다. DAT 'somebody'의 경우는 20절 이상 거슬러 올라가도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 지시적 거리 "20"을 갖는다. (22b)의 문장에서도 PAT인 'the job'은 지시적 거리가 "10"이며 PAT인 'another candidate'는 이전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아 "20"의 지시적 거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장에서는 지시적 거리가 낮

은 PAT가 DAT보다 자주 언급되어 이전담화와의 관련성이 높고 더 주제적이어서 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언급되는 직접목적어 자리에 놓이게 된다.

4.4 DAT와 PAT의지속성

아래 <표14>는 여격이동구문과 기본문에서 DAT와 PAT의 지속성의 평균 수치를 보여준다. 지속성이란 지시적 거리와는 반대로 언급한 지시대상이 그 이후담화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를 수치화한 값이다. 그 이후담화는 동사를 기준으로 10절로 한정하였고 그 안에서 같은 대상을 언급한 횟수를 본 연구에서 지속성의 값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 뒤의 담화에서 많이 언급되었다는 이야기로 후행담화와의 관련성이 높아 좀더 주제적이다. 다음은 지속성 평균수치의 분석표이다.

<표14> 지속성 평균 수치 비교

지속성 평균수치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DAT	4.0	1.3
PAT	0.2	0.3

<표14>에서 보면 여격이동이 된 구문의 DAT의 지속성은 "4.0"으로, 기본문의 DAT의 지속성"1.3"보다 더 높다. 즉 DAT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여격이동이 잘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격이동이 된 구문 안에서 DAT와 PAT

의 지속성을 비교해보아도 DAT의 지속성이 "4.0"으로, "0.2"인 PAT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므로 지속성이 높은 DAT가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높고 좀더 주제적이기 때문에 이동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문에서의 DAT와 PAT의 지속성은 "1.3", "0.3"이었다. 이는 문장에서 뒤에 놓이는 DAT의 지속성이 오히려 PAT보다 높게 나타나 경우이긴 하지만 두 수치의 차가 아주 작고 여격이동구문에서의 DAT의 지속성 4.0과 비교해볼 때 크게 낮은 수치이므로 기본문에서의 DAT와 PAT의 지속성의 값이 어순결정에 주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본다.

그리고 DAT의 평균지속성이 기본문에서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난 이유는 비록 선행담화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신정보가 앞으로의 후행 담화에서 주제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처음 제시되는 정보이지만 뒤 문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그 정보의 지속성이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에 놓이는 DAT가 선행담화에선 그다지 주제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개될 후행담황에선 정보성을 띠며 주인공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자.

(23) a. *Then he gave* ***her***$_i$ ***some advice***$_j$:/ "Don't treat her any differently than the other girls./ Demand more."/ and ***she***$_i$ did!/ Even before my father left us / ***my mother***$_i$ had to go back /... [4절].../ "***Mom***$_i$, I cant' peel potatoes. *(Readers Digest 63집:p6)*

b. ***Might a doctor give her***$_i$ ***the tetanus antitoxin***$_j$ / without realizing / **it**$_j$ could kill ***her***$_i$?/ They decided / that ***Linda***$_i$ should always carry some form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Her$_i$ father suggested / wearing a tattoo on ***her***$_i$ arm. / When ***Linda***$_i$ balked at the idea /...[3절] *(Readers Digest 63집:p28)*

(23)는 모두 여격이동이 된 구문으로 (23a)의 첫 문장의 DAT는 'her' PAT는 'some advice'로 DAT-PAT 구문이다. 후행담화의 지속성을 알아보면 DAT의 경우 같은 지시대상을 언급하는 대상이 10절안에서 총 3번 나왔으므로 지속성이 "3"이다. PAT의 경우는 10절 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성이 "0"이다. (23b)의 경우 첫 문장에서의 DAT 'her'의 지속성은 "5"이며 PAT인 'the tetanus antitoxin'은 이후 담화 두 번째 절에서 'it'의 형태로 한번 언급되었으므로 지속성이 "1"이다. 그러므로 지속성이 높을수록 후행 담화와의 상관성이 높아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다음은 여격이동구문과 기본문에서의 DAT의 지속성의 값을 수치별로 각각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15> 지속성 수치에 따른 분포비교

DAT 지속성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6--	54	54	100%	0	0%
3-5	65	61	93.8%	4	6.2%
1-2	41	35	85.4%	6	14.6%
0	38	24	63.2%	14	36.8%

<표15>는 지속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였다. 지속성이 6이상

즉, 후행담화 10절안에서 DAT가 6번 이상 언급된 경우는 총54개의 예문 중에서 100% 여격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3-5"의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93.8%, "1-2"의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85.4%의 비율을 가지고 지속성이 "0"으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63.2%가 여격이동구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DAT의 지속성이 낮아질수록 여격이동이 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문에서의 경우도 DAT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여격이동이 빈번하여 PAT-DAT순의 구문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PAT의 지속성의 값을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16> 지속성 수치에 따른 분포비교

PAT 지속성	합계	여격이동구문 (DAT-PAT)		기본문 (PAT-DAT)	
		수(개)	백분율(%)	수(개)	백분율(%)
6--	1	0	0%	1	100%
3-5	6	2	33.3%	4	66.7%
1-2	30	24	80%	6	20%
0	161	148	91.9%	13	8.1%

<표16>에서는 PAT의 지속성의 값으로 지속성이 "0"일 때는 8.1%, 지속성이 "1-2"일 때는 20%, "3-5"일 때는 66.7%으로 여격이동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커져 지속성 "6"이상일 때는 100%여격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PAT의 지속성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PAT가 후행담화와의 관련성이 높아져 담화상 주제적일 가능성이 커지므로 DAT보다 우선하여 직접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놓여지는 기본문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아래의

기본문의 지속성을 살펴보자.

(24) ***I plan to give <u>it</u> to <u>somebody else who needs it.</u>*** That **<u>coat</u>** really was the nicest thing I owned.

(Guideposts 2003 2월호:p90)

(24)의 문장은 기본문, 즉 PAT-DAT구문이다. 담화가 마무리 되는 경우여서 후행담화가 10절이 되진 못했지만 PAT인 'it'의 지속성은 뒤에 'coat'에서 한번 발견되어서 "1"이고 DAT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성이 "0"이다. 그러므로 후행 담화에서도 자주 언급된 PAT가 DAT보다 더 주제적이며 직접목적어자리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지속성 평균수치에서 보았듯이 여격이동 안된 구문에서의 DAT와 PAT의 지속성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가 "0"이었으며 후행 담화의 내용에 따라 뒤에 언급되었던 목적어의 지속성이 오히려 약간씩 더 큰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DAT와 PAT의 지속성의 수치가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어순배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Chen(1986)의 연구방법에 따라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두 목적어인 DAT와 PAT의 음절길이, 언어형태, 지시적거리 그리고 지속성의 값을 구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의 두 가지 목적어 DAT(여격)와 PAT(피동작주)사이의 어순 결정에 있어서 담화·화용적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제시한 담화분석을 통해 두 목적어 DAT와 PAT 중 '참여자 연속성'(Participant continuity)이 높아 담화와의 관련성(relevance)이 높을 때, 보다 중요한 자리인 직접 목적어 자리에 놓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얼마나 주제적이며 담화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Chen(1986)의 연구방법 4가지를 따라 DAT와 PAT의 음절길이, 언어 형태와 지시적 거리, 그리고 지속성을 측정하였다.

목적어의 음절길이를 측정한 결과 목적어의 음절길이가 짧을수록 동사 바로 뒤 직접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경향이 강했다. 즉, 전치사를 취하여 문미에 있던 기본문의 DAT는 음절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을 때 PAT보다 앞으로 이동되어 동사 뒤에 놓이는 여격이동이 잘 일어났다. 그리고 목적어의 언어형태 분석 결과 DAT가 비한정 명사구나 절의 형태에서 대명사, 한정명사구(정관사 명사구, 소유격 명사구, 지시사 명사구 등)로 갈수록 여격이동이 더 잘 일어남을 보였다. 즉, 대명사나 한정명사와 같이 담화 속에서 청자나 화자의 덧붙이는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한 친숙한 구정보인 경우, 문맥 속에서 좀더 주제적이므로 주어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인 직접 목적어자리에 놓여지는 것이다. 지시적 거리와 지속성은 선행담화와 후행담화와 지시대상과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수치로서, 지시적 거리는 해당 목적어가 선행담화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위치까지의 절수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선행담화에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DAT의 경우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여격이동이 일어났다. 지속성은

후행담화에서 해당목적어가 언급된 횟수를 측정한 값으로 이 지속성의 경우도 수치가 높을수록 담화상 주제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DAT의 지속성이 높은 경우 여격이동 잘 일어났다. 이로써 위의 4가지 연구를 통하여 DAT와 PAT의 주제성의 정도, 담화와의 관련성, 신정보와 구정보의 구별이 두 목적어의 어순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담화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DAT와 PAT를 가지는 여격이동이 가능한 구문인 소위 3형식과 4형식이라 불리는 두 형태의 구문을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하고 3형식 문을 4형식 문으로, 4형식 문을 3형식 문으로 변형시키는 훈련을 학습시키는 현재의 영어 문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격이동구문을 구사함에 있어 구조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담화·화용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제 원어민의 텍스트를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어민의 담화를 분석하여 원어민의 언어 사용 경향을 파악한다면, 그리고 이를 선별하여 교육자료로 이용한다면 학습자들의 담화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어가 아닌 우리말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을 분석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말의 여격이동 가능한 구문에서의 어순결정의 요인을 본 논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영어의 경우와 비교 대조해 본다면 영어번역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남 완. (2000). *영어여격구문 구조와 활용의미*. 문학석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양현정. (1998). *영어의 지시적 표현과 담화구조적 인지*. 문학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유연숙. (1986). *영어 간접목적어 구문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임금희. (2004). *불변화사 이동의 담화·화용적 분석*. 문학석사 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정희자. (1996). 영어 담화에서 초점형과 어순변형, *언어과학(3)*, 227-258.

최 선. (1999). *담화분석을 통한 문법기술의 타당성과 영어교육*.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외국어대학교, 서울.

한 호, 장영준, 김성찬, 이재근, 유석훈, 김재원, 임병빈, 박경자. (2001). *응용언어학사전*. 서울: 경진문화사.

Ariel, Mira. (1988). Referring and accessibility. *Linguistics* 24, 65-87.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lkestein, A. Machtelt. (1985). Cohesiveness and syntactic variation: Quantitative vs. qualitative grammar. In A. M. Bolkestein, C. de Groot and J. L. Mackenzie (eds.), *Syntax and pragmatics in functional grammar*.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Brown, C. (1983). Topic continuity in written English narrative.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Chafe, W. (1972). Discourse structure and human knowledge. In J. B. Carrol & R. O. Freedle, (eds.), *Language comprehens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ashington: John Wiley.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Chen, P. (1986). Discours and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Studies in language,* 10(1), 79-95.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New York: Arnold Press.

Givón, T. (1983a).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inguistic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Givón, T. (1983b).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the functional domain of switch-reference. In J. Haiman & P. Munro (eds.), *Switch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Gundel, Jeanette K., Nancy Hedberg, & Ron Zacharski. (198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74-307.

Kuno, S. (1979). On the interaction between syntactic rules and discourse principles. In George Bedell, et al(eds.), *Explorations in linguistics: Papers in honor of Kazuko Inoue.* Tokyo: Kenkyusha.

Larsen-Freeman, D. (1986).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thesius, V. (1939). On information-bearing structure of the sentence. In S. Kuno (ed.) *Harvard studi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I .(197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Van Dijk, T. (1977). *Text and context.* London: Longman.